

# 學校文法論(四)

李 喆 洙

〈仁荷大 教授 國語學〉

## 3. 高等學校의 文法指導內容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국어과는 국어 I 과 국어 II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국어 I의 言語事項과 국어 II의 언어사항 지도내용이 각각 다르다.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중 文法指導 내용을 言語經驗要素別로 재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文法要素別 指導內容

| 文法經驗要素 |                  | 文法指導內容                              | 국어 I II |
|--------|------------------|-------------------------------------|---------|
| 音韻     | 음운의 종류와 체계       | 1. 음운의 종류와 그 체계를 안다.                | ○ ○     |
|        | 음운변화의 조건·음운규칙    | 2. 음운변화의 조건과 규칙을 안다.                | ○       |
| 單語品詞   | 품사의 전성·품사의 기능    | 3. 품사의 전성과 그 기능을 안다.                | ○       |
|        | 단어의 구조·형태분석      | 4. 단어의 구조를 알고 형태를 분석한다.             | ○       |
|        | 품사분류·형태분석        | 5. 품사를 분류하여 형태분석을 한다.               | ○       |
|        | 품사의 하위분류·특성      | 6. 품사의 하위분류와 그 특성을 안다.              | ○       |
| 文      | 속어의 유형·품사의 전성    | 7. 속어의 유형과 품사의 전성을 안다.              | ○       |
|        | 문장의 구조·성분의 확장    | 9. 문장의 구조와 그 성분의 확장을 안다.            | ○       |
| 章      | 문장성분·구문분석        | 8. 문장성분을 구분하고 국어의 구문분석을 한다.         | ○       |
|        | 문장의 구조·호응        | 10. 문장의 구조와 그 요소 사이의 호응을 안다.        | ○       |
|        | 문맥적 의미·문장부호      | 11. 문맥적 의미를 알고 문장부호를 바르게 쓴다.        | ○       |
| 國語一般   | 언어의 본질·국어의 특징    | 12.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징을 안다.             | ○       |
|        | 방언               | 13. 방언과 그 분포에 대하여 안다.               | ○       |
|        | 국어사              | 14. 국어사의 개략을 안다.                    | ○       |
|        | 국어의 개념·문법적 문장    | 15. 국어의 개념을 알고 비문법적 문장을 가려낸다.       | ○       |
|        | 언어의 본질·국어의 구조 분석 | 16. 언어의 본질을 알고 국어의 구조분석을 한다.        | ○       |
|        | 국어 국자의 특징·국어정서법  | 17. 국어·국자의 특징과 국어 맞춤법을 안다.          | ○       |
|        | 국어 국자문제          | 18. 국어 애호와 국어 국자문제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갖는다. | ○       |

이상과 같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言語事項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국어 I에서는 국어 교과서의 각 單元 말미의 ‘학습문제’ 5-1에 문법 학습문제를 실어 단계적으로 지도하도록 했고, 국어 II에서는 별도의 문법 교과서(1종도서)로써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1985학년도부터).

### (1) 국어 I의 文法指導內容

국어 I의 문법 학습문제를 국어 교과서(1.2.3)별로 열거하고, 문법요소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국 어 I                                       | 문 법 학 습 문 제  | 문법요소  |
|---|--|---|
| <b>고등국어 1</b><br>2. 설명문(1)<br>학습문제<br>(5-1) | 문장의 구조를 알아보자.<br>(㉠) 인간은 불을 사용한다.<br>(㉡) 인간의 언어는 감탄사가 아니다.<br>하나의 문장은 주어부와 서술어부의 두 부분으로 짜이는데, 주어부의 중심이 되는 부분(예: 인간은, 언어는)을 主語라 하고, 서술어부의 중심이 되는 성분(예: 사용한다, 아니다)을 敍述語라 한다. 또 서술어 중에는 ‘사용한다’, ‘아니다’처럼 다른 성분의 도움을 받아야 그 문장이 완성해지는 것이 있다. 이러한 서술어 앞에서 ‘불을’과 같이 동작의 대상이 되는 성분을 目的語라 하고, ‘감탄사’와 같이 불완전한 서술어를 보충하는 성분을 補語라 한다.<br>다음에서 주어부, 서술어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밝혀보자.<br>(1)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남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눈다.<br>(2)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운 음성의 소유자는 아니다.                  | 文章構造<br>主語部<br>敍述語部<br>主語<br>敍述語<br>目的語<br>補語 |
| 3. 수필<br>학습문제<br>(5-1)                      | 문장의 구조를 알아보자.<br>(㉠) 모든 진실은 모두 아름답다.<br>(㉡) 아! 이런 집에서 우리 같이 살아요.<br>주어, 목적어, 보어는 체언(또는 체언의 도양을 갖춘 말)과 조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체언 앞에 (㉠의 ‘모든’이나 (㉡의 ‘이런’)과 같이 체언의 의미를 자세히 수식하는 성분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성분을 冠形語라 한다.<br>서술어는 용언으로 이루어지거나 체언과 서술격 조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서술어의 의미를 한정하는 성분으로는 副詞語가 있다. (㉠의 ‘언제나’가 부사어다. 수식어·관형어와 부사어 자신을 한정하거나 말과 말을 이어준다.<br>(㉡의 ‘아!’와 같이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을 獨立語라 한다.<br>다음 문장에서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를 가려보자.<br>(1) 참, 이 고구마가 오늘 우리 아침 밥이에요. | 文章構造<br>冠形語<br>副詞語<br>獨立語                     |

| 국 어 I                       | 문 법 학 습 문 제   | 문법요소                       |
|-----------------------------|---|----------------------------|
|                             | <p>(2) 뜻밖에 그 동네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p> <p>(3)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p>   |                            |
| 4. 전 기<br>학습문제<br>(5-1)     | <p>문장 성분의 확장에 대하여 알아보자.</p> <p>우리말의 기본문장은 둘 또는 세 成分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성분에 다른 성분이 덧붙여 문장이 길어진다.</p> <p>다음은 “소년이 비밀을 간직했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그 성분을 확장해 본 예이다.</p> <p>(개) 어린 소년이 비밀을 간직했다.</p> <p>아주 어린 소년이 비밀을 간직했다.</p> <p>독립군 이야기를 들은 아주 어린 소년이 비밀을 간직했다.</p> <p>(해) 소년이 소중한 비밀을 간직했다.</p> <p>소년이 매우 소중한 비밀을 간직했다.</p> <p>소년이 남들이 모르는 매우 소중한 비밀을 간직했다.</p> <p>(해) 소년이 비밀을 깊이 간직했다.</p> <p>소년이 비밀을 마음 속 깊이 간직했다.</p> <p>소년이 비밀을 보물을 숨기듯이 마음 속 깊이 간직했다.</p> <p>(해) 독립군 이야기를 들은 아주 어린 소년이 남들이 모르는 매우 소중한 비밀을 보물을 숨기듯이 마음 속 깊이 간직했다.</p> <p>위에서 보인 (개)는 주어말, (해)는 목적어말, (해)는 서술어말 확장한 것이며, (해)는 이들을 결합해 본 것이다.</p> <p>다음 문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장시켜 보자.</p> <p>(1) 충무공은 거북선을 만들었다.</p> <p>(2) 젊은이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p> | 文章成分의 擴張                   |
| 5. 설명문 (2)<br>학습문제<br>(5-1) | <p>품사의 기능을 알아보자.</p> <p>품사는 직능과 형태와 의미에 따라 名詞, 代名詞, 數詞, 動詞, 形容詞, 冠形詞, 副詞, 感歎詞, 助詞의 아홉 가지로 분류된다.</p> <p>이 가운데 명사, 대명사, 수사는 원칙적으로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의 여러가지 성분이 된다.</p> <p>다음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를 골라 문장 속에서의 성분을 밝혀 보자.</p> <p>(1) 그것은 농업 생산 활동과 불가분의 관련을 가졌다.</p> <p>(2) 경주 지방에서 발굴된 금관이 셋이다.</p> <p>(3) 우리의 선인들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공예 문화물 이룩하였다.</p>  | 品詞의 機能<br>品詞의 類分<br>體言의 機能 |
| 7. 논설문 (1)<br>학습문제<br>(5-1) | <p>품사의 기능을 알아보자.</p> <p>동사와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서술어가 되지만, 전성 어미를 붙여 활용하면 여러가지 成分이 된다.</p> <p>다음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골라 문장 성분을 밝혀 보자.</p> <p>(1) 나는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 왔다.</p> <p>(2)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p>  | 品詞의 機能                     |

| 국 어 I                      | 문 법 학 습 문 제   | 문법요소                       |
|----------------------------|---|----------------------------|
|                            | <p>영광스럽다.</p> <p>(3) 가르침을 펴고자 생명을 버린 그의 행동은 감명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p> <p>(4) 놀라운 기세로 진행되어 온 한국의 세계 진출이 전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다.</p> <p>관형사는 관형어, 부사는 부사어, 그리고 감탄사는 독립어 구실을 한다.</p> <p>다음에서 관형사, 부사, 감탄사를 골라, 문장의 성분을 밝혀 보자.</p> <p>(1) 나는 그 말을 믿으려 아니한다.</p> <p>(2) 저런, 저 사람이 제 정신을 잃었군.</p> <p>(3) 월정사는 새로 지었기 때문에 옛 모습을 볼길 없었다.</p>  |                            |
| 8. 국어의 이해<br>학습문제<br>(5-1) | <p>품사의 전성에 대하여 알아보자.</p> <p>(가) 이것은 어느 물건에 붙은 <u>이름</u>이다.</p> <p>(나) 이 명제는 너무 <u>명법</u>하다.</p> <p>어떤 품사가 다른 품사로 바뀌는 것을 <u>轉成</u>이라 하고, 전성된 품사를 <u>轉成品詞</u>라 한다.</p> <p>가령 (가)의 ‘이름’처럼 ‘이르다’라는 동사에서 명사로 전성된 것을 <u>轉成名詞</u>, (나)의 ‘명법하다’처럼 ‘명법’이라는 명사에서 형용사로 전성된 것을 <u>轉成形容詞</u>라 한다.</p> <p>다음 밑줄 그은 부분의 단어들은 어떤 품사에서 어떤 품사로 전성되었는지 살펴보자.</p> <p>(1)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u>이해</u>하여 주어야 한다.</p> <p>(2) 저 붉은 빛의 <u>아름다움</u>을 <u>그림</u>으로 나타내 보자.</p> <p>(3) <u>세계</u> 향은 문학에 관한 목표다.</p>  | 品詞의<br>轉成<br>轉成名詞<br>轉成形容詞 |
| 10. 소 설<br>학습문제<br>(5-1)   | <p>품사의 전성에 대하여 알아보자.</p> <p>(가) 질동이 신 세 념도록 감히 부형을 부르지 못하고.</p> <p>(나) 잠자는 자 <u>잔</u>을 깨라.</p> <p>(다) 담정은 주지의 <u>뒷그림</u>자를 <u>멀리</u> 바라다 보았다.</p> <p>어떤 품사가 다른 품사로 전성하게 되면 전성된 품사의 구실을 하게 된다. (가)의 ‘<u>잔</u>’은 본래 수사이지만, (나)에서는 관형사로 전성하였으므로 관형어 구실을 한다. (다)의 ‘<u>잠</u>’은 명사로 전성하여 목적어 구실을, (다)의 ‘<u>멀리</u>’는 부사로 전성하여 부사어의 구실을 한다.</p> <p>다음에서 밑줄 그은 단어의 품사와 문장의 성분을 밝혀 보자.</p> <p>(1) <u>초인</u>의 신세는 부운과 같사오니, <u>살골</u>의 버린 자식이 어찌 방 소를 두리잇고.</p> <p>(2) <u>사팍스</u>런 어린 양들이 <u>어둠</u> 속에서 헤맵니다.</p> <p>(3) 담정은 금당으로 가 불을 <u>밝히고</u> 주위를 <u>정히</u> 치렀다.</p> | 轉成形容<br>詞<br>轉成副詞          |
| 11. 논설문 (2)<br>학습문제        | <p>형태 분석에 대하여 알아보자.</p> <p>‘어머니’라는 말은 ‘어/머니’나 ‘어/니’ 또는 ‘어/머/니’로 나</p>   | 形態分析<br>形態素                |

| 국 어 I                       | 문 법 학 습 문 제  | 문법요소                             |
|-----------------------------|--|----------------------------------|
| (5-1)                       | <p>누어 놓으면, 각 부분은 아무 의미도 나타내지 못한다. 즉, '어머니'라는 말은 의미를 고려하는 한, 더 작게 나눌 수 없다. 그러나 '짓밟히면'은 '짓/밟/히/면'으로 나누어 놓아도 각 부분이 제각기 특수한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어머니, 짓, 밟, 히, 면' 등과 같이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언어 단위를 形態素라 하고, 말을 형태소별로 분석하는 것을 形態分析이라 한다. 형태소에는 혼자 설 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말에 기대어서 쓰는 말도 있다.</p> <p>다음 문장을 어절, 단어, 형태소로 나누어 보자.</p> <p>(1) 창조를 흔히 無에서 有를 만들어 냄이라 한다.</p> <p>(2)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하겠다.</p> <p>(3) 문법이란 대체로 언어의 기능면을 관찰하여, 과학적으로 체계를 세우는 학문이다.</p>  |                                  |
| 12. 수필 (2)<br>학습문제<br>(5-1) | <p>단어의 구조를 알아보자.</p> <p>㉠ 등장 <u>집</u> 사랑방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p> <p>㉡ 화전민 후예들의 <u>지붕</u> 밑에 호롱불이 꺼지길 않았다.</p> <p>㉢ 산골 동네엔 <u>기와집</u>이 없었다.</p> <p>單語는 그 구조로 보아 單一語와 合成語로 나뉜다. ㉠ ㉡ ㉢의 '집, 지붕, 기와집'은 '집'이란 단어가 공통으로 쓰였다. ㉡의 '집'은 혼자 독립할 수 있는 실질 형태소가 하나만 쓰였으므로 단일어이다. ㉢의 '지붕'은 '집'에 독립할 수 없는 형식 형태소 '옹'이 붙었고, ㉢는 두 개의 실질 형태소 '기와'와 '집'이 결합되어 두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졌다. ㉢의 '지붕' 같은 것을 派生語라 하고, ㉢의 '기와집'과 같은 것을 複合語라 한다.</p> <p>다음에서 단일어, 합성어를 잘라 보자. 또 합성어 중에서 파생어와 복합어를 잘라 보자.</p> <p>(1) 연기는 몸에 배서 옷자락과 손등에서도 냄새가 난다.</p> <p>(2) 떡판에선 김이 무럭무럭 올랐고, 우리는 군침이 흘렸다.</p> <p>(3) 다들이질을 하고 바느질을 하던 한국 여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누가 감히 따를 수 있을까?</p> | 單語形成<br>單一語<br>合成語<br>複合語<br>派生語 |
| 13. 기행문<br>학습문제<br>(5-1)    | <p>단어의 구조를 알아보자.</p> <p>㉠ 이 <u>시퍼런</u> 바다를 저어서 건너가 볼까.</p> <p>㉡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안으로 들어선다.</p> <p>파생어 중에서 형식 형태소가 ㉢의 '<u>시퍼런</u>'처럼 앞에 붙어서 된 것과, ㉢의 '<u>두근거리다</u>'처럼 뒤에 붙어서 된 것이 있다. 이런 형식 형태소를 接辭라고 하는데, 접사 중에서 ㉢의 '시'처럼 앞에 붙는 것을 接頭辭, ㉢의 '거리다'처럼 뒤에 붙는 것을 接尾辭라 한다. 접미사가 붙는 실질 형태소를 語根이라 한다.</p> <p>다음에서 파생어를 찾아 어근과 접사로 나누고, 접사를 접두사, 접미사로 분류해 보자.</p> <p>(1) 몸뚱이에 두루 감은 이끼 빛깔이나마 힘껏 들우어 본다.</p> <p>(2) 집으로 되돌려 보내고자 하였으나, 란겨울이라 이듬해 봄까</p>  | 單語形成<br>派生語<br>接辭(接頭辭·接尾辭)<br>語根 |

| 국 어 I  | 문 법 학 습 문 제   | 문법요소                      |
|--|---|---------------------------|
|  | 지 기다렸다.   |                           |
| <b>고등국어 2</b><br><b>2. 국어의 이해</b><br><b>학습문제</b><br><b>(5-1)</b> | <p>음운의 종류를 알아보자.</p> <p>‘밥’의 경우 ‘ㅍ’ 대신 ‘ㅅ’를 바꾸어 넣으면 ‘법’이 되고 ‘중성’ ‘ㅌ’ 대신 ‘ㄱ’을 넣으면 ‘발’이 된다. 이처럼 말의 뜻을 갈라 놓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音韻이라 한다.</p> <p>음운에는 목청의 振動을 받은 소리가 혀, 입술, 코, 목구멍 등의 발음 기관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며 나오는 子音과, 발음 기관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나오는 母音이 있다.</p> <p>다음에서 음운의 종류를 가려 헤아려 보자.</p> <p>(1) 우리 옛말은 향가를 비롯하여 사람 이름, 땅 이름, 벼슬 이름 등에 전해져 있다.</p> <p>(2) 시대가 바뀔에 따라 인간의 생활이 변하듯이, 우리의 언어도 변천한다.</p> | 音韻의 種類<br>子音<br>母音        |
| <b>3. 소 설</b><br><b>학습문제</b><br><b>(5-1)</b>                     | <p>자음의 체계를 알아보자.</p> <p>자음은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등으로 나뉜다. 그리고 목청의 울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나뉜다. 또 위의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세 갈래의 배류를 이룬다.</p> <p>다음 자음을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해 보자.</p> <p>(1) ㄱ, ㄲ, ㅋ      (2) ㄴ      (3) ㄷ, ㄸ, ㅌ<br/> (4) ㄷ      (5) ㅁ      (6) ㄹ, ㄺ, ㄻ<br/> (7) ㄴ, ㄷ      (8) ㅇ      (9) ㅅ, ㅆ, ㅈ<br/> (10) ㅇ</p>                             | 子音體系<br>子音의  종류           |
| <b>4. 논설문</b><br><b>학습문제</b><br><b>(5-1)</b>                     | <p>모음의 체계를 알아보자.</p> <p>모음은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前舌모음, 中舌모음, 舌後모음, 입을 벌리는 정도에 따라 開母音, 閉母音, 입을 둥글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에 따라 圓순모음, 평순모음, 발음하는 동안 소리가 한결같은 單母音, 소리가 달라지는 二重母音 등으로 대략 구성된다.</p> <p>다음 모음도를 보고, 모음을 구분하여 발음해 보자.</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혀의 앞뒤</p> </div>   | 母音體系<br>母音의  종류<br>국어母音 圖 |
| <b>6. 설명문</b><br><b>학습문제</b>                                     | <p>언어의 본질에 대하여 알아보자.</p> <p>언어는 인간이 가진 의사 전달의 주요 수단이다. 언어의 표현 형</p>   | 言語의 本質                    |

| 국 어 I                          | 문 법 학 습 문 제  | 문법요소                               |
|--------------------------------|--|------------------------------------|
| (5-1)                          | <p>식은 음성이며, 그 내면에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언어에는 사회성과 역사성이 있어, 한 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회적 제약을 받으며, 오랜 세월 역사적 연마와 도야를 통하여 변모한다.</p> <p>다음은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 보자.</p> <p>(1) 언어는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하는 문법적 음성이다.</p> <p>(2)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p> <p>(3) 언어에는 역사성이 있다.</p>  |                                    |
| 7. 기행문<br>학습문제<br>(5-1)        | <p>국어의 특징을 알아보자.</p> <p>㉞ 마의배자가 명경대를 우러러 보았다.</p> <p>㉟ 우리는 그 봉우리를 멀리 바라 보았다.</p> <p>국어의 문장 배열상의 특징은 ㉞에서처럼 語順이 주어(마의 배자가), 목적어(명경대) 또는 보어, 서술어(우러러 보았다)의 순서로 배열된다는 것과, ㉟에서처럼 꾸미는 말(그, 멀리)이 꾸밈을 받는 말(봉우리, 바라보았다) 앞에 놓인다는 것이다.</p> <p>다음에서 국어의 문장 배열상의 특징을 밝혀 보자.</p> <p>(1) 이 산은 4백리에 뻗었고,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서, 5월에도 눈이 녹지 않습니다.</p> <p>(2) 장안사 앞으로 흐르는 계류를 끼고 돌며 몇 구비의 협곡을 거슬러 올라가니, 산과 물이 어울리는 지점에 조그마한 찾질이 있다.</p>  | 국어의<br>特質<br>문장<br>배열상<br>특징       |
| 8. 국문학의<br>이해<br>학습문제<br>(5-1) | <p>국어의 특징을 알아보자.</p> <p>㉞ 이들은 모두 조선의 창업을 승영한 악장이다.</p> <p>㉟ 남은 문제는 이 전통을 어떻게 더욱 빛내면서 이어 나가야 하느냐에 있을 것으로 믿는다.</p> <p>국어에는 실질적인 의미는 없이 문법적 관계만을 나타내 주는 말이 많다. ㉞의 ‘은, 의, 을, 이다’ 등의 조사와, ㉟의 ‘-(으)ㄴ, -게, -면서, -어, -야, -느냐, -(으)고, -는다’ 등의 어미가 모두 실질적 의미는 없이 문법적 관계만을 나타내 주는 말이다. 이는 국어의 添加語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p> <p>다음에서 조사와 어미를 밝혀 보자.</p> <p>(1) 고려 말에 그 모습을 드러낸 시조는 한글 창제와 더불어 국문학의 대표적 장르가 되었다.</p> <p>(2) 법과 꿈은 한반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맹수들로, 이 겨레를 오래도록 괴롭히고 위협하여 왔다.</p> | 국어의<br>特質<br>添加語                   |
| 9. 수 필<br>학습문제<br>(5-1)        | <p>국어의 특징을 알아보자.</p> <p>㉞ 바람이 선들선들 불었다.</p> <p>㉟ 노인께서 조용히 말씀하신다.</p> <p>국어의 음운상의 특징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중요한 것으로 모음조화와 두음법칙을 들 수 있다. ㉞ ‘선들선들’이나 ‘불었다’에서처럼 한 낱말의 첫 음절의 모음의 종류가 다음 음절의 모음</p>   | 국어의<br>特質<br>音韻上의<br>특질 (母音調和·頭音法) |

| 국 어 I | 문 법 학 습 문 제   | 문법요소 |
|-------|---|------|
|       | <p>의 종류를 제한하는 수가 있는데, 이를 母音調和라 한다. (4) ‘노인’의 경우에서처럼 ‘ㄴ, ㄹ’ 음이 말의 첫머리에서 제한되어 ‘로인’이 ‘노인’, ‘녀자’가 ‘여자’ 등으로 되는 것을 頭音法則이라 한다. 다음에서 모음조화와 두음법칙을 밝혀 보자.</p> <p>(1) 바람은 달과 달라 쏘삭쏘삭 알랑거린다.</p> <p>(2) 우리 여성들의 안목과 솜씨가 전통이 되어 우리의 내일을 이어갈 것이다.</p> | 則)   |